

LG생명과학, 일본과 바이오시밀러 공동연구

LG생명과학(대표 정일재)은 일본 제약기업 모치다(Mochida)와 바이오시밀러 분야 공동 연구개발 및 일본시장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월7일 발표했다.

계약에 따르면, 양사는 LG생명과학이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임상과 허가 등록을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상업화 이후 LG생명과학의 오송공장에서 완제품을 전량 생산해 양국에 공급할 예정이다.

LG생명과학 관계자는 “모치다와의 계약으로 자체 개발에 성공한 바이오시밀러 관련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앞으로 국내와 일본에서 상업화 일정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2/11/07>